

결혼 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

Subjective Meanings of Marital Adjustment for Married Wome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이 지 선
조 교 수 천 혜 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Courses : Lee, Jisun

Assistant professor : Cheon, Hye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결혼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married women about marital adjustment. Eleven women were interviewed, creating interview texts that were analyzed by van Manen's wholistic and selective approaches. These women explained marital adjustment in five aspects: being realistic, accepting their identity as married women, taking the middle, acting craftily, and building up their characters. In conclusion, these women experienced the growth and transition while they adjusted to their marital life in the early stage of marriage.

주제어(Key Words): 여성의 결혼적응(women's marital adjustment), 결혼초기(early stage of marriage), 주관적 의미(subjective meaning)

I. 서론

결혼 초기는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결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줄과 동시에 상이한 생활습관, 성격,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재확인해나가야 하는 적응의 시기이다. 이광자(1992: 165)는 이 시기의 부부관계가 결혼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이 때 적응에 실패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만족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반면, 갈등의 잠재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 통계를 보더라도 2,30대의 이혼율이 남자는 29.1%, 여자는 40.3%이며 결혼한 지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

Corresponding Author: Hyejung Cheon,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20-750
Tel: 82-2-3277-4099 E-mail: hjcheon@ewha.ac.kr

계청, 2005). 이동원(1983: 35-40)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적응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1-3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상담을 받았던 부부들이 대부분 결혼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은희, 김득성, 2005). 또한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가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는(통계청, 2005) 사실은 결혼 초기에 형성된 잘못된 상호작용 유형은 수정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결혼 초기에 어떻게 서로의 차이점을 조정해가는가에 따라 결혼의 유지여부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결혼 초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은 결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Burgess와 Locke(1960: 260)는 결혼 적응을 결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정의내리면서 결혼생활에서 무엇보다 부부의 조화로운 관계, 공동의 관심 및 활동, 동의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owerman(1964: 124)은 결혼 적응을 특정한 결혼상황이나 상호작용에 관련된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적응해야 할 영역으로 가족 중심적 문제, 개인 중심적 문제, 그리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 Spanier(1976)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부부의 일치, 만족, 응집, 애정 표현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부부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결혼 적응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이기숙(1984)은 부부가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해서 그 결혼에 만족하고 부부 상호간에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 등을 발달시킴으로써 결혼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한다고 느끼도록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이숙현(1988)은 각기 결혼한 배우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결혼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김경은, 정옥분(1998)은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을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보다 발전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결혼 전 변인, 그리고 부부 상호작용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 결혼지속연수, 여성의 취업, 그리고 자녀 등을 들 수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결혼적응을 보이며(오명숙, 1978; 강은령, 1989; 전효정, 1998; Bouchard, Lussier & Sabourin, 1999), 결혼 지속연수에 따라 남편의 결혼적응도는 증가하지만 아내의 적응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1980: 68-

70).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주부가 결혼적응이 높다고 보고하거나(박태은, 1983), 취업자체가 결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동기나 직업에 대한 부부의 태도가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도 있다(김태현, 이성희 1999). 자녀의 경우 자녀의 존재로 인해 부부가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김유진, 1999; 최주희, 2000). 또한, Odell과 Quinn(1998) 및 Waldron과 Routh(1981)은 첫 자녀출산 후 부인의 결혼적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박금순(1984)도 결혼적응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첫 자녀를 낳은 후 1-3년이 가장 많고, 다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결혼직후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결혼적응에 관한 결혼 전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결혼생활, 교제기간, 어릴 때의 행복감, 결혼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찬성여부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결혼 전 교제기간이 길고(김양희, 박정운, 최유경, 2003), 부모나 친족, 그리고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Kirkpatrick, 1963: 321), 그리고 부부 공통의 친구가 많고, 부부의 지역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결혼적응도가 높아진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최주희, 2000). 또한, 원가족의 특성이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김영희, 1999), 이를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원가족 건강도가 결혼적응에 큰 영향을 준 변인으로 드러났다(김현정, 김명자, 1999). 특히,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변인이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여성의 결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Sabatelli, & Bartle-Haring, 2003).

마지막으로 부부 상호작용 변수로 부부 의사소통(박숙경, 1996; 최주희, 2000), 자아분화수준 및 자율성(조은경, 정혜정, 2002; Quinn & Odell, 1998), 자기개방(전길양, 1988) 등을 조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자아분화수준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개방의 정도가 적절할 때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갈등의 유무나 정도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식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김은정, 1992), 부부가 갖는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결혼적응이 달라지는데 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지할수록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차송희, 1991; 최유경, 2002).

이와 같이 지금까지 결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우선 사회 인구학적 특성들은 결혼 적응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Miller, 1976; Rhyne, 1981; White, 1983). 또한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부부 중심의 서구문화와 달리 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여러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국문화에는 적

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경성, 한덕웅, 2003),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과, 남편과 부인에게서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나 이 검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노은여, 권정혜, 1997). 한편, 이숙현(1988)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가족역동의 내부에 연구의 관심을 집중시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결혼적응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근로자계층 부부로 한정되어 있고, 유교적 전통 속에서의 결혼적응을 다루고 있어 결혼 적응의 의미가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의 목적 또한 미국부부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적 부부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결혼적응을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결혼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1970년대 이래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결혼적응척도를 사용하여 대부분 결혼적응을 하나의 종속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부부들의 결혼적응이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또는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부부들에게 결혼적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적응이라는 체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었다. 즉, 결혼 및 결혼생활이란 부부와 가족구성원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의 장이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당사자들이 체험한 결혼생활의 적응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부부 당사자들 중 아내들이 결혼생활의 적응과 관련되어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여성의 삶이 여성 자신의 경험과 갖대로 평가되는 일이 드문 현실(여성학연구모임, 1992: 35)속에서, 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경험자의 내부자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의 한 영역인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결혼 초기 여성 11명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와 성격 및 생활습관을 비롯한 새로운 관계에서의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여성들이다. 특히 결혼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통계청, 2005) 현실은 이 시기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표 1〉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가명)*	나이	거주지	학력	현재직업	결혼기간	자녀
1) 이정은	29세	서울	대졸	주부	1년 11개월	1세
2) 이수현	29세	경기도	대졸	주부	3년 5개월	3세
3) 이은지	32세	서울	대졸	회사원	2년 8개월	무
4) 박지수	29세	서울	대졸	교사	8개월	무
5) 나정아	27세	서울	대학중퇴	주부	3년	4세
6) 오혜경	29세	서울	고졸	주부	3년 11개월	4세/2세
7) 정수진	30세	서울	대졸	개인사업	4년	3세
8) 임민정	29세	서울	대졸	주부	3년 7개월	2개월
9) 김진희	28세	서울	대학재학	학생	4년	4세/1세
10) 임혜주	29세	서울	대졸	강사	1년 7개월	무
11) 유민희	29세	서울	대졸	교사	11개월	무

* 참가자들에 관한 정보는 2005년 12월에 준한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의 일반적 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가자들의 결혼과정 및 가족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정은씨는 대학시절 동아리를 통해 만난 남편과 3년의 교제 후 결혼하였으며,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수현씨는 만난 지 두 달 만에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준비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군인이다. 이은지씨는 연하인 남편과 7년 연애 끝에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 장교인 남편과 둘이 6개월을 살다가 현재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살고 있으며, 유학준비를 하던 남편을 돕기 위해 취업을 하였다. 박지수씨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5년 교제 후 결혼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자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남편도 경기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이다. 나정아씨는 대학 4학년 때 만나서 연애한 지금의 남편을 친정에서 반대하여 아이를 먼저 낳고 결혼해 현재 주부로 살고 있으며, 아이를 키운 후에는 다시 학교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혜경씨는 같은 직장의 상사였던 남편과 교제한 뒤 결혼했으며, 아이 둘을 낳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다. 정수진씨는 유치원 교사 시절 적극적인 구애를 해오던 남편과 1년여 연애 후에 결혼하였으며, 현재는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임민정씨는 같은 직장동료인 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였고, 결혼 후 주부로 지내다가 얼마 전 아이를 낳았다. 김진희씨는 대학생 시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편과 1년 반 연애 후 결혼하였고, 결혼 후 시댁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분가하였으며, 현재는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주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임혜주씨는 대학교 4학년 때 소개로 만난 남편과 5년 연애 한 후 결혼하였고, 음악 강사를 하고 있으며, 지방에 계신 홀시아버지를 남편과 자주 찾아뵙고 있다.

유민희씨는 대학 선배인 남편과 올해 초 결혼하였으며,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로서 남편과 맞벌이 부부이고, 현재는 남편의 회사 근처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질적 인터뷰이며, 이러한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van Manen(1990: 146-147)은 인간현상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과 경험의 의미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와 좌담식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수단으로써 경험적이고 화법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인터뷰를 하기 위한 참가자들과의 만남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이들과 이들로부터 또 다른 이들을 소개받는 snow-bow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전화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만났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설명하였다. 인터뷰기간은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로 참가자의 집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인터뷰하였다. 참가자들마다 1-2회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내용 중 의미를 확인하고 명료화 작업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이다. 추가 인터뷰에는 우선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참가자들이 가능한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에게서 좀 더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Kvale(1998: 101-103)이 제안하였듯이 도입 질문과 엄밀한 조사 질문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도입 질문으로 배우자와의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결혼 당시 결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결혼직후의 생활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자신의 결혼, 배우자, 부부생활 등에 대해 가볍게 회고해보도록 하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엄밀하게 조사하고 음미하는 후속 질문을 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에 접근하였다. 예를 들면, 참가자가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서로 다듬어져 간다는 진술을 한 경우, 다듬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함으로써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터뷰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녹음기 사용을 설명하고, 참가자의 허락 하에 인터뷰의 전(全)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구술 자료를 필사본(texts)으로 옮겨 분석 자료를 마련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1990: 172-173)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과정을 거쳤으며,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또한, 현상에 대한 텍스트의 주제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전체론적(wholistic) 접근법과 선택적(selective) 접근법을 적용하여 글 읽기를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든 인터뷰 원문에 대한 거듭된 숙독을 실시하였다.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전체로서의 텍스트에 주목하면서 어떤 핵심어구가 전체로서의 텍스트의 기본 의미나 주된 의의를 포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택적 접근법을 통하여 경험의 핵심이자 생동감있는 경험의 구조로 포착된 테마(themes)를 어떠한 진술들이 본질적인 의미를 기술하는지 살펴보았다. 즉, 인터뷰 원문에서 드러난 테마는 원문 전체의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선별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대표하는 필수적인 구절들을 선택하였다(천혜정, 최혜경, 2001).

마지막으로 Lincoln과 Guba(1985: 56-75) 및 Moustaks(1994: 84-90)의 주장에 따라 질적 내용 분석 연구의 적합한 과정을 거쳤는데, 가족학 전문가와 여러 번의 의견교환 및 대화(dialogue)를 통해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테마와 주요한 의미들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2차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상호 주관적 합의(intersubjective agreement)를 이루었다.

III. 결혼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

1.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결혼과 결혼생활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상 의미에 차이가 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미혼남녀가 서로 만나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일생의 단 한 번뿐인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

〈표 2〉 van Manen(1990)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단계

1단계	생생한 체험의 본질 집중 단계	현상을 지향하며,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고 가정과 선 이해를 반성한다.
2단계	실존적 탐구 단계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탐구하고, 현상학적 문헌을 참조하여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한다.
3단계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 단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형식으로, 체험구조의 측면을 주제 중심으로 분석한다.
4단계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단계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집중하여 예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고쳐 쓴다.

는 상황에 의미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결혼생활이라는 단어는 결혼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연상시키게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결혼과 결혼생활은 분명 의미의 차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김시업, 1999: 46).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결혼생활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라고 보고 있었다. 여기서, 이들이 이야기한 현실의 첫 번째 의미는 결혼이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연애 때와는 다른 개념의 주말문화화를 갖는 것을 현실이라 보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를 찾고 있다.

“연애할 때는 되게 좋는데 이제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김진희)

“연애할 때랑 다르지. 연애할 때는 재밌는 거 즐거운 거로 멋진 테이트를 만드는 거 자체만으로도 좋았지. 우리 재밌는 데 가요. 이런 거. 요새는 그런데 자주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같이 있는 게 편해. 옛날에는 만나러 나가야 되고, 오빠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줘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고, 서로 편안하게 보내는 게 주말의 목적 중에 하나지.”(유민희)

현실의 또 다른 의미는 오락적인 측면의 즐거움으로서가 아닌 결혼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남편의 이해를 바라게 되는 것이며,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인 연애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내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남편에 대한 돌봄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결혼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 연애할 때랑 틀리지. 좀 더 신경 쓰이게 되고, 아프다고 그러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연애라서 그런지 그렇게 까지 심하게 걱정되진 않잖아. 그럼 약 먹고 쉬어. 오늘 못 만나겠네. 이렇게 그 정도지. 근데 오빠가 아프다고 그러면 옆에 붙어 있게 되고, 결혼하고 내 사람이란 생각에 너무 걱정되고 옆에서 앓고 있으면 그날은 잠을 못자. 열 확인하고, 덮어주고, 물수건도 해줘야 되고, 약 먹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지도 짚 내서 가라고 계속 챙기게 되고. 들어오면, 음식도 아프니까 소화 잘 되는 거 먹여야 되고. 약도 먹이게 되고. 마음가짐이 틀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픈 거니까 그렇고 결혼해서는 내 사람, 내거란 생각에 그게 틀려.”(임민정)

또한 현실은 선택적인 함께 함이 아닌, 어느 때나 함께 함을 뜻하는데, 다투거나 몸이 안 좋으면 안 만나도 되는 연애와 다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행해야 한다는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라 여기고 있었다. 현실의 마지막 의미는, 집안 살림 및 시댁식구들에 대한 어려움이다. 즉, 유민희씨는 살림을 해보지 않다가 결혼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먹고 사는 것의 힘들, 오혜경씨는 엄마에게

받던 생활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나정아씨는 시댁식구들과의 문제에 대한 부담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거 받기만 하고 살림에 대해서 해보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먹고, 빨래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유민희)

“마음에 부담이... 엄마한테 다 받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들어. 원래 결혼하면 남자를 내조해야한다는 게 반이잖아. 난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 특별히 뭘 해보지를 안아서 마음에 부담이 되었구.”(오혜경)

“제일 어려웠던 게 결혼식 딱 끝나고 나서부터 현실이잖아요. 그니까 아무래도 시댁식구들. 시댁하고 문제가 제일 힘들었죠. 아니 뭐 큰 일이라기보다는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제 마음가짐도 물론 달라졌겠지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감 같은...”(나정아)

이상에서, 참가자들에 의한 현실의 의미는 결혼이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이며, 결혼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남편의 이해를 바라게 되는 것과 함께 이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남편에게 돌봄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인 함께 함이 아닌, 어느 때나 함께 함을 뜻하고, 집안 살림 및 시댁식구들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의 적응이라는 것이다.

2.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서, 여성은 결혼한 여자, 즉 유부녀가 되고 남성은 남편이며 유부남이 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유부녀’가 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다가 차츰 ‘결혼한 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아가는 것을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한다(김순기, 유영주, 2001). 다시 말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탐색적 질문과 함께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生)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역할들과 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

“감정적으로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거지. 이전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잖아. 애인이 있는 한 여자였었는데, 지금은 결혼한 여자잖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아, 내가 아줌마구나. 결혼한 여자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구나. 조금씩 가정 살림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머느리로서 역할도 이제부터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의 엄마도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현재의 여성이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보통은 결혼을 하면 결

혼한 여자가 되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는 내가 이미 결혼한 여자가 됐지만, 내면적으로는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머리로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쉽지 않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가슴으로 깨달아 진거 같애.”(박지수)

통과 의례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넘어가야 할 극적인 순간들, 예를 들어 사춘기, 결혼, 취업, 죽음 등의 순간들을 넘어가는 관문의 의식이라 하였다(권귀숙, 1998: 24). 인류학자들도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할 때 통과의례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사람의 일생은 끊임없이 여러 단계나 상태를 통과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출생 성인 결혼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두산 세계대백과사전, 2005). 결국, 사회는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사람이라고 명명하지만, 결혼한 본인은 결혼한 여자로서의 자기인식과 자기확신을 한 후에야 결혼한 여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우리 시대 아줌마 혹은 기혼여성이라는 존재가 주객스럽고 수다스러우며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 결혼한 여자이자 아줌마로서 자신의 모습을 머리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가, ‘내가 결혼한 여자구나. 아줌마구나.’ 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찾은 결혼한 여자로서의 정체성 및 역할은 아내로서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다.

“내가 주부가 되고 한니까, 더 최선으로 집안일을 잘해서 남편이 도와야 될 일을 줄이면 그게 남편한테 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생각은 되게 이기적이어서 ‘난 쉬고 싶고 남편은 이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었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면 남편은 다른 영역에서 더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에 적응을 하는 것 같아.”(이정은)

또한 연구에 참가한 결혼 초기 여성들은 며느리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결혼생활 적응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이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다. 이번 주에 우리 집, 다음 주에 시댁 이런 식으로 매주 움직여. 세 집을 챙겨야 한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지. 결혼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님 건강, 그리고 챙길 사람이 더 많아진 거.”(유민희)

결국 결혼생활초기에 있는 참가자들이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회·문화의 규범적 정의에 따른 사회화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새로이 꾸린 가정의 안주인(安主人)으로서 자신의 집을 챙기고, 딸과 며느리로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로 볼 때 결혼초기가 결혼으로 성립된 친족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김희진, 2004)는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및 역할 뿐 아니라, 남편이 남자의 느낌보다는 가족의 느낌으로 익숙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정리하고, 밥을 먹고, 남편의 옷을 빨면서 애인이었던 남자가 남편으로 느껴지는 경험에 대해 적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이제 남자라기보다는 가족이고, 처음부터 가족이란 느낌은 안 들잖아. 그런데 연애하는 기분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점차 이게 익숙해 지지. 일상으로. 그러면 남자의 느낌보다는 가족의 느낌이 딱 들어. 남편이지.”(임민정)

“허물없이 그냥 지내는 거. 생활자체가 늘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이런 게 가족이란 느낌이 들지. 시댁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고민 할 때 가족이구나.”(이은지)

결국, 남편을 내조하고 기다리는 아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고, 남자가 아닌 남편에 대해 그리고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결혼한 여자로서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하며,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결혼한 여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결혼생활적응의 의미인 듯하다.

3.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결혼초기는 부부의 공통적인 삶을 위하여 일상생활방식과 습관들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가진 서로 다른 두 개의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함께 협상해가는 과정이다(Minuchin, Rosman & Baker, 1978: 124-127). 이러한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남편과의 생활습관이나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를 발견하며 결혼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는데 이때 자신과 남편과의 다른 생각이나 요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게 되고, 이를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여기에서 참가자들이 언급한 ‘중간’이란 물리적인 중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정말 중용인 것 같애. 가운데로 맞춰지는 것 같애. 중간으로... 서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내 맘대로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는 거가 중간인거 같애. 행동이나 습관이나 성격을 배려하면서 중간으로 맞춰져가는 거지.”(이수현)

이러한 ‘중간’은 이전에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들, 특히 생활습관,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한 남편과의 차이를 경험하는 가운데 맞춰져 가는 것임을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이야기하였다. 서로 다른 습관과 행동이 있음에도 그것을 맞추는데 있어서 서로의 살아왔던 환경의 차이이기 때문

에 감안하고 넘어가거나, 부부관계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적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양말 벗어놓는 것, 치약 짜기, 세탁물 구분해서 넣기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결혼생활적응은 모든 것을 같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각자 과일 먹고 싶으면 알아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깎아먹고 그러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버릇이 돼서 나 혼자 과일을 깎아먹고... 중략... 내가 예전에 혼자 살았던 습관들을 정리하고 남이었던 어떤 사람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지. 각자의 습관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이정은)

“생각의 차이가 있죠. 산부인과를 결정할 때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실력이 중요하다 그런 거구,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여야 되지 남자의사에게 은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남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아내가 병원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병원도 다른 병원이나 산부인과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느꼈죠.”(정진희)

정진희씨는 특히 산부인과를 결정하면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결혼초기는 두 사람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때로는 잠재해 있던 어려움을 표출시켜 이제까지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선미, 전귀연, 2001)는 측면에서, 결혼생활적응은 남편과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중간으로 맞춰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응은 처음부터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해주지. 이렇게 해줘서 좋았어. 이렇게. 그리고 가끔 물어보기도 해. 좋아? 확인 이런 거. 그럼 어 좋아. 얘기하고. 그게 좋은 거 같애. 되게 중요한 거 같애. 부부생활에 있어서 뭐가 만족스럽고 뭐가 불만이고 뭘 고쳤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바라는 나는 무엇인지. 그걸 순간순간 얘기하는 게 좋은 거 같애. 그래야지 맞춰지잖아. 그래야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상황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몰랐구나!’ 알잖아.”(임혜주)

이처럼, 결혼초기부부는 낯선 두 사람이 안정된 세계를 위해 서로가 공유하며 구축해 나가는 관계이며, 부부들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각자의 경험이 서로의 것으로 재확립되고 내면화되는 과정(Berger & Keller, 1980: 82)을 갖게 된다.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각자의 다른 성장배경과 생각이 있

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중간으로 맞춰지고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데서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부부가 함께 양보하고 이해하며 의견을 들어주는 대화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적응의 의미를 찾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바로 ‘마음 알아 줌’이다. ‘마음 알아 줌’은 부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중요한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로 작용한다고 결혼 4년차 주부 정수진씨는 이야기한다.

“서로의 마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 갈수록. 연애할 때야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좋은 줄만 알지만. 살다보면 서로의 마음을 많이 알아줘야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중략...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기 때문에 잘 맞춰가는 거 같아요. 남편 입장, 남편마음을 이해하고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정수진)

4.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우가 되어가는 것이다”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댁과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다루는데 점차 요령이 생기고 다름이 줄어드는 것을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결혼 적응 과정을 스스로가 ‘여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랑 생각이 다른데도 예하기가 힘들잖아. 그게 어려웠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어졌지. 대답은 내 하고 행동은 내 맘대로. 요령이 생겼다. 대처방법이 생겼지. 지금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는데도 그냥 넘어가.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어. 이제. 나도 이제 점점 여우같이 되어가는 거란 생각이 들지.”(이수현)

‘여우’란 말에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여우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여 옛날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우가 울면 초상이 난다’ ‘여우가 심하게 울면 줄초상이 난다’라는 속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우는 주로 교활하고 알미운 사람이나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반면,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나 행동에 비유되기도 한다(야후 국어사전, 2005). 이는 여우가 예로부터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물이며, 꾀 많고 교활한 동물로서 동서양의 여러 우화나 민담에서 즐겨 다루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배병균, 2003: 24).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이 자신들이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여우에 비유한 것은 주로 눈치 빠르고 요령 있는 대처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임신해서 시부모님이 매주 오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게 힘든 거야. 시댁이 평촌이거든. 그래서 남편한테 부모님이 매주 오시는 것도 힘들시고 이번 주말 다음 주는 우리도 일이

있고, 우리 시간을 갖자고 좋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안 오셨더라고. 그걸 대 놓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가족 간에 서로 자기 가족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싸움 밖에 되지 않아. 좋게 해결될 수가 없어.”(임민정)

또한 이숨우화의 ‘여우와 포도’ 이야기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상황에서 포도가 아직 덜 익었을 것이라고 위안을 하는 여우의 행동에서처럼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즉,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 실패 등을 그럴듯한 이유나 구실을 붙여 당연하거나 옳은 것인 양 둘러대거나 생각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파란 국어사전, 2005)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참가자들은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하기가 어려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그건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어머니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포기한다.

“처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시키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잘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우가 내 스스로 편하지. 있잖아. 신포도 이야기에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 원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이수현)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적응이 요구되는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인데(최유정, 1998), 연구에 참가한 이은지씨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시댁과의 적응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있어도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남편이랑 결혼했지만 시댁이랑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님한테 불만 있던 것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려니 그러죠. 근데 처음엔 그게 너무 색다르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하는 얘기라든가 생각, 어머니 식습관, 어머니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맞춰 나가는 거지. 예전에는 내가 뭐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는 하시나보다.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갈등이 되요. 어머니랑 나랑 다르다.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인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 있죠? 그냥 따라가야겠다.”(이은지)

이러한 ‘따라감’과 비슷한 맥락에서, 갈등발생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놓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니까 내가 속이 터지는 거지. 화병이 생길 것 같지. 그러니까, 얘기를 나도 잔소리 같아서 싫어하고. 오빠도 별로 그러고. 화가 났다 그러면 둘 다 다른 방에서 놀아. 얘기 안 해. 얘기안하고 자고 그러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얘기하고 이러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래.”(임민정)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여성들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결혼

초기라는 특성 탓인지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순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비유한 ‘여우’라는 이미지와 다소 모순된 듯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요령 있게 대처한다는 의미로 여우라는 단어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그저 따라 간다” “그냥 넘어 간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한다” 등 다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 초기는 성장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갈등대처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패턴은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이선미, 전귀연, 2005). 이들이 말하고 있는 여우가 되어간다는 것이 결혼생활에 익숙해져 조화롭게 어울려나간다고보다는 결혼생활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습성을 변화시키면서 순응해나간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내가 커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자신이 커나간다고 하는 의미로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가며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싸우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하고 다르지만 내 자신이 커나가는 것 같애.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애. 예를 들면, 네모에서 모난 것이 없어지고 이게 깎여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의해 채워져서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커지는 것 같애. 인격적으로나 큰 사람이 되는 거지.”(이수현)

자신이 커나가는 것을 한사람의 어른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네모에서 모난 부분 대신 서로에 의해 채워져 원이 되면서 커나가게 되고, 특히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큰 사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나감 속에는 자신에게 소중한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룬데 대한 책임감 또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한 가정을 이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지. 그래서 맞춰지는 거 같애.”(임혜주)

“결혼을 하니깐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결혼하니깐 이거는 내 삶을 나와 남편과 함께 책임을 져야하고 이제 2세를 책임져야 하고.”(이정은)

또 다른 참가자들은 결혼생활적응이 내가 커나가는 의미로 ‘삐죽삐죽했던 자신이 다듬어지는 것’ 그리고 ‘성격이나 자신이 둥글둥글 해지고 원만해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딱 삐죽삐죽했던 내가 다듬어 지는 거 같아요. 다듬어지는

계 적응인거 같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신경질난다고 해서 신경질 내는 게 아니고, 내 성질만 생각 해서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고 부딪혔다면 그 일들을 겪고 나서 터득한 거 같아요. 터득해서 다듬어지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성질 낼 거를 성질 안내고 참았다가 나중에 서로 감정이 정리되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김진희)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맞춰가는 것. 성격이나 내 자신이 둥글둥글 해지고 원만해 지고.”(이수현)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에게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내가 커나가는 것, 자신이 어른이 되고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룬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성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녀 각자는 아직 성숙이 덜 된 찌그러진 오펜이기는 하지만, 사랑하면서 다듬어지고 채우며 동그해지는 온쪽. 그래서 나 자신을 구심점으로 하는 두 개의 온 쪽이 한곳을 바라보고 같이 굴러가는 부부(유계숙, 천혜정, 김양호, 전길양, 2003: 15)라는 이야기에 공감하게 된다. 더불어, 부부관계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결혼생활을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볼 때, 결혼생활적응이 내가 커나가는 것이라는 참가자들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초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결혼생활에 있어 적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때 현실의 의미는 결혼이 연애와는 다르다는 것이며, 결혼생활에서 남편에게 돌봄을 더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때나 함께 함을 뜻하고, 집안 살림 및 시대 식구들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의 적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나는 연애, 화려한 결혼식이나 핑크빛 허니문에서 누렸던 달콤함만이 아닌, 결혼생활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묻어나오는 희로애락을 경험하여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라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는 결혼생활을 앞둔 이들과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크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비현실적일 경우 결혼 후 현실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적응하기는 어렵다고 한 결과(하상희, 정혜정, 2000)를 보더라도 본 연구의 참가자들 이야기처럼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의 적응이라는 의미는 결혼생활이

바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현실에 대한 여성과 남성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를 수용하며 준비하려는 결혼예비교육 및 사회·문화적인 분야의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둘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참가자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적응의 모습이다. 특히 참가자들의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비슷한 시기(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신세대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즉, 신세대 결혼초기 여성에게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생활적응의 모습은 바로 결혼제도 자체가 전통적이며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지만, 사회제도로서 결혼제도는 인류역사에서 지난 수천 년간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매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장필화, 1997). 또한, 사회의 대다수 인구가 따르는 사회 활동의 기본양식으로 굳어진 결혼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고정된 행위 양식이 되었고 이러한 양식들은 강한 제재에 의해서 유지되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결혼제도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수용하게 한다. 즉, 결혼제도라는 우산 속에 들어간 신세대인 참가자들은 그들이 지녔던 특성과 모습을 드러내기 보다는 결혼이 가져다주는 전통적인 성에 따른 구분에 의해 이들의 결혼생활적응이 나타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참가자들의 결혼생활 속에서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결혼생활적응의 의미가 역할과 정체성의 차원에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결혼제도 및 결혼생활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최근에 등장하는 이전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결혼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주제이다.

셋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남편과의 생활습관이나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를 발견하며 결혼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는데, 이때 자신과 남편과의 다른 생각이나 요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게 되고, 이를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중간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맞춰지는 중간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20년이 넘게 몸에 밴 습관과 사고방식들을 가진 자신과 전혀 다른 생활환경 속에 자라온 상대방과 맞춰가기 위해서 이들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적응의 의미라는 점에서 결혼초기

여성들에게 나타난 의미들 가운데 매우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 있어 적응의 의미는 처음부터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를 이루어 가는 요소가 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남편과의 차이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중간으로 혹은 대화나 마음 알아줌을 통해, 결혼생활 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결혼초기 부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실현함에 있어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리라 여겨진다.

넷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우가 되어가는 것이다. 여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요령 있게 대처한다는 의미와 신포도 이야기에서의 여우처럼 자기합리화의 의미이다. 참가자들은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을 요령 있게 대처한다는 의미로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기까지 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어머니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하기가 어려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그것은 어머니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머니 스타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내면과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자기합리화는 달리 보면 인지를 이용한 나름의 문제해결방식이라 보인다. 즉, 인지이론에서 말하는 원인을 귀속시킨다는 의미의 귀인(attribution)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행동, 사건, 현상 등이 생긴 이유를 추론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나 즐거운 일 보다는 고통스럽고 나쁘고 불쾌한 일이 일어난 경우에 그러하다고 본다. 이러한 귀인은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며, 인간의 감정, 태도, 행동을 결정한다(이동원, 박옥희, 2000: 126). 또한,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적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생활의 만족여부가 달라진다는 이경성(2003)의 연구에서 결혼생활에 만족한 경우에 배우자가 한 행동들 가운데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술하고, 긍정적 행동과 관련한 생각을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하며,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이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자기합리화는 서로 다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한 방법이며, 결혼생활의 적응은 갈등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태도를 정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미의 여우가 되어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

어두는 식의 갈등대처방식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최규련(1995)의 연구결과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갈등대처방식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내가 커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참가자들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며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부부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자신의 모습이 다듬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특히, 내가 다듬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남편과의 다툼이 있거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때인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지 터득하며 다듬어지게 된다. 이처럼, 결혼생활적응을 스스로 커나가는 것으로 보는 점은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반성과 반추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과 결혼생활 그리고 부부관계를 부지런히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발전적 관계의 결혼적응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결혼초기 여성의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적응의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결혼생활의 적응의 의미는 결국 '변화'와 '성장'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다양한 변화의 경험과, 그러한 변화 속에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은 특히, 남성보다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가는 데 더 능숙하며,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에 대해 사회화가 이루어졌기에 변화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더 쉽게 여긴다고 본다(Odell & Quinn, 1998). 즉, 변화를 깨닫고 도전에 나선 스티프와 스킨리에게는 새로운 치즈창고가 기다리고 있지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에 집착한 햄에게는 굶주림만 남았다는 스펜서 존슨(2000)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도 결혼생활 적응이라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변화하였으며, 그럼으로 커나가게 되었다는 성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난 결혼생활적응의 의미들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닌, 변화와 성장이라는 두 수레바퀴에서 나온 인내와 노력의 결정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초기 여성 11명의 결혼생활적응의 이야기이지만 지금껏 문혀있었던 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참가자들 가운데서도 제안된 바 있는 결혼초기 남성의 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생활적응의 의미

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은령(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귀숙(1998). 신혼여행의 사회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경은, 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시엽(1999). 결혼과 가정. 서울: 학지사.
- 김양희, 박정윤, 최유경(2003). 기혼남녀의 스트레스 지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8, 49-63.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유진(1999).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이성희(1999).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현정, 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청주시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김희진(2004).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은여, 권정혜(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 -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박금순(1984). 변화되어가는 부부관계. 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
- 박숙경(1996). 부부간 의사결정 및 역할수행구조와 결혼적응: 자녀를 둔 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온(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39-150.
- 배병균(2003). 중국문화 속의 여우 형상. 인문학지, 27, 75-99.
- 여성학연구모임(1992).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성의 삶과 결혼의 의미. 서울: 한백기획.
- 오명숙(1978). 결혼적응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천혜정, 김양호, 전길양(2003). 부부탐구 -발달적 관점에서 본 부부교육-. 서울: 신정.
- 유은희, 김득성(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8.
- 이경성(2003).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21-31.
- 이경성, 한덕웅(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 이광자(1992). 결혼 초 부부관계의 적응.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이기숙(1984).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적응의 변화. 부산여대 논문집, 17, 601-617.
- 이동원(1983).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의 부부관계. 박금순(편). 변화되어가는 부부관계. 서울: 한국부인회 총본부.
- 이동원, 박옥희(2000).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선미,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학논집, 22, 161-181.
- 이영진(2000)역.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서울: 진명출판사.
- 장필화(1997). 한국의 성문화와 성교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1):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13(2), 41-76.
- 전길양(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1998). 한국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적응의 메커니즘: 인간 발달 생태학적 모형의 증대, 연애결혼에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6(11), 19-41.
- 조은경, 정혜정(2002). 기혼남녀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 차승희(1991).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대처방안 및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혜정, 최혜경(2001).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23-41.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1999). 아줌마의 사회적 표상과 역농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문.
- 최유경(2002). 결혼초기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

- 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정(1998). 한국 주부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희(2000).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적응연구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 하상희, 정혜정(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3(2), 27-38.
- Adams, B. N. (1980). *The Family: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Berger, P. L., & Keller, H. (1980).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J. M. Henslined. *Marriage and the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ouchard, G., Lussier, Y., & Sabourin, S. (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651-660.
- Bowerman, C. E. (1964). Prediction studies, In H.T. Christensen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icago: Rand McNally.
- Burgess, E. W., & Locke, H. J. (1960).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ew York: Am, Bk.
- Kirkpatrick, C. (1963). *The family as process and institution*. New York: Ronald Press
- Kvale, S. (1998).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Sage.
- Lincoln, Y. S., & Guba,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 Miller, B. C. (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643-657.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California : Sage.
- Odell, M., & Quinn, W. H. (1998). Congruence, desire for change, and adjust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marriag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7(1/2), 9-31.
- Quinn, W. H., & Odell, M. (1998). Predictors of Marital Adjustment During the First Two years. *Marriage & Family Review*, 27(1/2), 113-130.
- Rhynne, D. (1981). Bas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497-509.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0).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ies*, 65(1), 159-169.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cc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38.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tate Univ of New York.
- Waldron, H., & Routh, D. K. (1981). The effect of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785-788.
- White, L. 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511-519.
- <http://dic.paran.com/>(파란 국어사전)
- <http://kr.dic.yahoo.com/search/kor>(야후 국어사전)
- <http://www.encyber.com>(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2006년 3월 9일 접수, 2006년 5월 19일 채택)